

1월 29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1월 29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7

ch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p>뉴욕 급등.. `배드뱅크 기대+ 제로금리 유지` [다우: 8,375.45pt (+ 2.46%)</p>	<p>28일(현지시간) 뉴욕 주식시장이 급등세로 마침. 주요 지수는 일제히 2~3%대의 상승률을 기록. 버락 오바마 새정부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배드뱅크`를 운영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금융주가 큰 폭으로 오르며 랠리를 주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가 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제로금리(0~0.25%)를 유지한 것도 투자심리를 지지.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지수 상승을 뒷받침.</p>
<p>금융주 랠리.. `배드뱅크 기대`</p>	<p>씨티그룹(C)이 18.6% 급등. 뱅크오브아메리카(BAC)도 13.7% 뛴. 웰스 파고(WFC)는 30.9% 폭등.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은행들의 악성 자산을 매입하는 `배드뱅크`를 운영할 것이라고 보도. 대다수 정책 입안자들은 오바마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새로운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p>
<p>연준, 제로금리 유지-장기국채 매입 준비</p>	<p>연준은 이날 1월 FOMC를 열고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제로(0~0.25%) 수준으로 동결. 아울러 당분간 기준금리를 제로수준으로 유지할 것임을 확인. 연준은 성명서에서 "12월 FOMC 이후 경제가 더욱 약화됐다"며 "이같은 경제 상황은 당분간 예외적으로 낮은 수준의 기준금리를 보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 연준은 이에 따라 금융위기 해소를 위해 `TALF(Term Asset-Backed Securities Loan Facility)` 등 유동성 공급 조치들을 지속하고, 장기국채 매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힘.</p>
<p>경기부양법안, 내달 중순 발효 전망</p>	<p>미국 하원은 이날 저녁 전체 회의를 열어 8,25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하원 민주당 의원들이 오바마 경제팀과 협의해 제출한 이 법안은 5,500억달러의 재정지출과 2,750억달러의 감세안을 골자로 하고 있음. 하원에 이어 상원도 내주중 경기부양법안을 승인할 전망. 상·하원 경기부양법안에 차이가 있을 경우 양안협의회가 구성돼 수 주간의 조율을 거치게 됨. 조율을 거친 법안은 내달 중순까지는 오바마 대통령의 사인을 받기 위해 백악관으로 보내질 것으로 관측.</p>
<p>유가 소폭 상승.. `경기부양 기대` [WTI: \$41.58 (-\$4.15)]</p>	<p>국제유가가 버락 오바마 새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따른 수요 회복 기대감에 힘입어 소폭 상승. 이날 에너지부가 발표한 미국의 지난주(23일 마감) 원유 재고는 전주대비 620만배럴 증가. 그러나 휘발유 재고는 10만배럴 줄어듦. 난방유를 포함한 정제유 재고도 100만배럴 감소.</p>

제목	주요 내용
유럽증시, 이틀만에 큰 폭 상승	유럽 증시가 이틀 만에 다시 큰 폭으로 상승. 지난 26일 3%대의 상승을 나타내는 등 투자심리가 급속히 안정되고 있음. 기록했던 유럽 증시는 전날 보합을 거쳐 28일 다시 2-4%대의 급등세를 나타내는 등 투자심리가 안정되고 있음.
EU "에너지·IT 투자로 경기 부양"	유럽연합(EU)이 침체에 빠진 역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에너지와 정보기술(IT)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방침. EU 집행위원회는 28일 집행되지 않은 잉여예산 50억유로를 내년 말까지 역내 경기부양에 사용할 것을 제안하면서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 IT 인프라 확충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
일(日)·영(英), 제조업체에도 대규모 공적자금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초로 선진국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각국이 잇따라 추가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음. 일본 정부는 27일 일반 기업에도 총 1조5,000억엔(약 23조원)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 대상은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이 있는데도 경기침체 여파로 일시적으로 자금난에 빠진 중소기업들. 영국은 27일 23억파운드(약 4조5,000억원)의 자동차 산업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
코스피 `키몬다 효과 만끽` 6% 상승	국내증시는 연휴 사이 누그러진 금융부실 우려에 안도하며 글로벌 증시와 키 맞추기에 나섰다. 금융위기 우려 완화와 함께 미국 금융권에 대한 추가지원 기대감이 반영되며 은행주가 급등. 연휴기간에 전해진 독일 키몬다 파산 소식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등 반도체주들이 초강세를 보이면서 지수상승을 강하게 이끌었음. 이번 키몬다 파산으로 반도체 업체들의 글로벌 구조조정 속도에 박차를 가할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
KTF, 연간매출 8조원 시대 열어	KTF는 작년 연간기준 총매출 8조3,462억원, 서비스매출(총매출에서 단말기 판매제외) 5조9,842억원을 기록했다고 28일 밝혔음. 총매출은 전년대비 14.4% 증가해 창사 이래 처음으로 8조원을 돌파.
기업 체감경기 여전히 한겨울. BSI 두달째 바닥권	2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제조업의 1월 업황BSI는 47로 작년 12월의 46보다 1포인트 가량 상승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음. 자금사정만 따로 조사한 BSI는 67로 전월에 비해 6p 호전됐음. 자금사정이 호전됐다고 응답한 기업이 작년 12월에는 전체의 30.5%였으나 1월에는 33.5%로 늘었다는 의미임. 그러나 여전히 66.5%는 자금사정이 악화됐다고 응답해 전반적인 체감경기는 작년 12월보다 더 나빠진 것으로 해석됨.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